

보도시점 2025. 8. 5.(화) 11:00
8. 6.(수) 조간

배포 2025. 8. 5.(화) 09:00

외국인도 반할 ‘케이(K)-농촌체험’

-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 부대행사로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 개최
- 한국 농촌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글로벌 홍보로 외국인의 농촌 관광 유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 부대행사로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를 8월 6일(수) 오후 경기도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는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며, 삼겹살 바비큐, 수박, 송산 포도, 찹쌀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의 정과 온기가 담긴 케이(K)-음식의 우수성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 농촌을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매년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에는 한류 문화·드라마·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약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1) 1.7만명 → ('22) 5.3만명 → ('23) 6.9만명 → ('24) 11.6만명 → ('25) 13.9만명(추정치)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한국 농촌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농촌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APEC 회의 참석자들을 환대하고, 남은 회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붙임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 부대행사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 포스터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은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이영택 (044-201-1592)

